

98.129

96-12-83

북한관주관 '96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품집

# 통일로 가는 길



통일교육원



##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원에서는 통일사업의 하나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민족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를 지난 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부산, 인천, 광주,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곳 지방북한관 주관하에 제2회 대회를 열었던바, 1,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준도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울 만큼 훌륭한 글들이 많아 모두 입선시키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최우수작품 30편을 하나로 묶어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오니 통일후계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통일글짓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지도교사님, 그리고 심사위원님과 유관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96년 12월

통일교육원장



# 차 례

## 부 산 북 한 관

시 부 문	초등부 : 할머니의 한숨/이도경 .....	9
	중등부 : 통일이 오면/주선희 .....	11
	고등부 : 할아버지의 연/소은숙 .....	14
산문부문	초등부 : 통일전망대를 찾아서/곽계정 .....	16
	중등부 : 할머니의 사진/조은희 .....	19
	고등부 : 그들에게도 자유를/이은주 .....	22

## 인 천 북 한 관

시 부 문	초등부 : 동자꽃 아가야/김나래 .....	29
	중등부 : 친구야 놀자/조영상 .....	31
	고등부 : 국보/고재진 .....	34
산문부문	초등부 : 통일이야기/나성혜 .....	35
	중등부 : 평양 월드컵/안자영 .....	39
	고등부 : 우리 꿈이 실현될 때/오경선 .....	43

## 광 주 북 한 관

시 부 문	초등부 : 꿈속에서 만난 북한 친구와 함께/이인에 ...	49
	중등부 : 이 천지 어디에도 강물은 넘치고/이승엽 ...	52
	고등부 : 까마귀여/조서영 .....	54
산문부문	초등부 : 우리는 다정한 형제/김은희 .....	56
	중등부 : 통일은 왜?/장 원 .....	59
	고등부 : 판문점을 다녀와서/배은숙 .....	62

### 청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 : 통일은 언제쯤/변양길.....	69
	중등부 : 어머니(조국)/천은정 .....	71
	고등부 : 봄을 좋아하는 소녀/전인숙 .....	73
산문부문	초등부 : 수학여행/권윤희 .....	75
	중등부 : 피는 물보다 진하다/박미라 .....	77
	고등부 : 하나이기 때문에/이지숙.....	80

### 제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 : 통일의 돌담/김민식.....	85
	중등부 : 오색풍선을 띄우자/김세희.....	87
	고등부 :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날/이송희.....	89
산문부문	초등부 : 나의 꿈은 해군/홍성연 .....	91
	중등부 : 친구야!/신경립.....	94
	고등부 : 어느 귀순용사의 눈물/김지연 .....	97

## 부산북한관 '96 통일글짓기 대회 최우수작

### 시 부문

초등부 : 할머니의 한숨/이도경

중등부 : 통일이 오면/주선희

고등부 : 할아버지의 연/소은숙

### 산문부문

초등부 : 통일전망대를 찾아서/곽계성

중등부 : 할머니의 사진/조은희

고등부 : 그들에게도 자유를/이은주





## 할머니의 한숨

이 도 경

구서초등학교 6학년

시간의 강물이  
몇 해를 흘렸는가  
세월도 무거운지  
“휴우—”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머언 먼

저 북녘 하늘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할머니 모습에,

통일이란 고작 두 자의 낱말이  
왜 이렇게  
가슴 시리는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굽어진 허리에 질끈 동여맨  
가느다란 끈 하나 풀지 못해

서로 남남이 되어버린 내 조국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위대한 희망  
같은 피 나눈 한 민족  
통일 되어 하나 되는 꿈을

할머니의 한숨 속에  
가득 채워드리고 싶다.

## 통일이 오면

주 선 회

계성여자중학교 3학년

통일이 오면 외치리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이산가족의 아픔,  
지울 수 없는  
6·25의 깊은 상처,  
통일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

이 가슴의 멍에를 딛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외치리라.  
만세! 만세! 만세!

통일이 오면 달려가리라.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 날  
모두가 손을 잡고

백두산을 향해  
달려가리라.  
그 곳에 태극기가 꽂히리라.  
그리고 영원히 휘날리리라.  
찬란하게

통일이 오면 달리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통일의 그 날

멈추었던 철마가  
다시 달리리라.  
7천만 동포의  
아픔과 눈물을 싣고서  
힘차디 힘찬 소리를 내며  
언제까지나 달리리라.

통일이 오면 부르리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날.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하리라.  
모두가 함께하는 그 날  
하나가 된 남과 북은  
정말 아름다우리라.  
아름다운 그 곳에서  
모두가 하나되어  
통일의 노래를 부르리라.

통일이 오면.

## 할아버지의 연

소 은 속

영도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빛바랜 두루마기  
나뭇같은 몸을 들어  
할아버진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북녘땅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연을 날린다.

하늘 위로 떠오른 연이 구름에 젖을 때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폭풍갈던 그날의 아픔으로 젖는다.

빛나간 사상과 이념에 가려진  
핏덩이 같던 세월  
아직도 할아버지의  
짓밟힌 상처 위로  
고름이 피어오른다.

하늘 너머 저 하늘 위엔  
두고온 할머니, 아들, 딸들이  
눈 앞에서 아른거린다.

삭아진 노을에  
연이 붉어질 무렵  
언젠가는  
북녘 하늘 위로 비상할 연을 그리며  
할아버지는  
오늘도 얼레를 감는다.

## 통일전망대를 찾아서

곽 계 성

옥천초등학교 6학년

“야! 통일 전망대다!”  
친구들의 환호성에 창 밖을 보았다.

‘아니! 벌써 통일 전망대야?’

기쁜 마음과 설레인 마음으로 우리들은 통일 전망대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 버스 안에서 내 마음은 오직 북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찼다.

드디어 통일 전망대에 도착!

우리는 3층 안내실로 올라갔다. 각각 자리에 모두가 앉으니 안내원이 북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앞에 모니터의 화면과 같이 북한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아파트가 북한이 우리 남한에 게 잘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위한 건물도 몇 군데 있는 것을 보아 김일성을 무척 숭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여러 내용의 말을 메모지에 차례대로 적었다. 하나



하나를 체크해 나가면서 적으니 ‘북한의 생활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진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땅을 볼려고 하니 선생님께서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 ‘북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더욱 심해져서 발길이 자꾸만 철조망 가까이로 다가갔다.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통일이 되지 못하여 가보고 싶은 북녘땅도 가지 못하는 것일까?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텐데…….’

그 때 내 친구 선희가 나에게 다가와서

“난 비무장지대에도 가 봤어. 지뢰가 많아 위험해서 민간인들은 출입을 못한데.”

아직도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1층 전시실로 갔다.

그 곳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옷차림, 그리고 북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학용품 등 여러 종류의 북한 생활용품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에 띄는 것은 북한 어린이들의 교과서였다. “미국놈 쳐부시며 꼬마땅크 나가신다.”라는 무서운 말이 적혀있는 책, 그리고 음악책에는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노래 가사가 대부분이었다.

‘포악한 언어를 쓰고 전쟁에 관한 내용만 쓰는 책이 북한 교과서인가? 어떤 것이 교과서이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니…….

전시실 옆에는 조그마한 컴퓨터가 있어서 북한의 생활 하나

하나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북한의 생활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것을 끝으로 나는 통일 전망대를 나섰다. 통일 전망대를 나서는 순간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다. 1주일에 한 번씩 북한에 대한 스크랩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것을 우리반에서 5월달부터 시작하였는데 벌써 20매 짜리 스크랩을 조별로 짝 매웠다. 월요일은 선생님께서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화, 수, 목요일은 자료를 모은 다음 금요일은 스크랩정리, 토요일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 그 덕분에 난 북한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사람에게 권해보고 싶다.

우리 6학년들 모두가 통일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우리 6학년들의 간절한 노래가 저 먼 북녘땅까지 들려 남·북의 평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친구들과 정답게 얘기를 나누었으면…….

## 할머니의 사진

조 은 희

해운대여자중학교 3학년

아 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머리가 하이얀 그 할머니를 또 보았다. 벌써 다섯번째다.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서 발갱게 달아오른 해가 한 모서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셨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 조각을 움켜쥐신 채…….

‘도대체 어떤 큰 걱정이 있으신걸까? 어떤 걱정이길래 할머니께서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꽃 숲에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지?’

그 때였다. 바람이 휩 불더니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종이 조각이 날아와 내 앞에 떨어졌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이 사진, 아드님 사진인가요?”  
할머니께 건네 드리며 물었다.

“아니,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할머니 남편요? 와, 이렇게 젊어요?”

“그건 젊었을 때 모습이지. 지금은 많이 늙었을꺼야.”

“할머닌,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돌아가셨나보죠?”

“그렇지도 모르겠구나. 저 하늘 건너편 북쪽에 있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북쪽이에요?”

“그래.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람은 잡혀갔고 나 혼자 이곳으로 내려와서 기다렸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내려오질 못했지.”

“6·25 전쟁요? 그럼 그 전쟁을 할머님도 보셨어요?”

“아주 처참했지. 피붙이 형제들끼리 돌로 나눠져 서로 죽이고 다치게 하고……. 온통 피바다였어. 뿌연 연기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신음으로 가득찼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싸움이었지. 끔찍했어.”

“그래서, 이렇게 돌로 나뉘어 살게 됐군요.”

“그건 우리 모두가 바란 것이 아니었던단다. 자기들 입장과 이익만 생각한 다른 몇 나라가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지. 그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하고 미워해야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거야. 넌 꼭 그걸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아무리 떼어놓아도 결국 한 핏줄, 한 형제, 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꼭 다시 어울리고 합쳐서 그 때의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돌아가셨다.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 그 짧은 대화속에서 난 지난 날의 우

리 모습과 할머니와 같은 이산 가족의 아픔과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을 보았다. 전쟁, 가난, 이별, 그리움……. 정말로 뿌리치고 싶었다. 한 핏줄, 한 형제끼리 싸우고 경계하는 어리석음, 정말로 버리고 싶었다. 또 마음 한편으로는 뜨거운 어떤 것이 울컥했다.

우리가 하나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다는 것, 조금은 무겁기는 하지만 언젠가 내가 우리가 되어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이다.

반세기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을 몰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어둠을 몰아낼 그 날까지 난 언제나 할머니의 사진을 기억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 그들에게도 자유를

이 은 주

금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지 난 겨울, 난 너무나 강렬한 포스터 한 장을 길거리에서 보았다. 돌이켜 보니, 그것이 경찰서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것 같다. 붉은 빛이 감도는 포스터. 새삼 붉은 빛깔이 가지는 주목성에 감탄을 하며 포스터를 읽기 시작했다.

‘북한 인쇄물전’

교지를 만들고 문집을 만들었던 탓인지 난 이상히도 거기에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결국엔 전시장을 다녀와 버렸다.

복잡한 버스과 막히는 도로. 겨울철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가는 길은 붐볐다.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해 오는 속을 참아가면서 드디어 전시장에 도착을 했다.

전시물들이 약간 눈에 익은 내용이 많아 조금은 지루했다. 처음에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지하철 역사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니 하는 교과서에서 이

미 배운 내용부터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쪽 벽면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여기가 다른 세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시물들이 색달랐다.

두꺼운 마분지로 만든 듯한 촌스러운 색들이 그려진 상자들. 그것들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신기함도 잠시 난 요즘도 그들이 이런 것을 쓰는가 싶었다. 그것들의 모양이 흡사 TV에서만 보아왔던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물건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것들은 과거에 쓰여졌던 물건들이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었다.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다. 수치상의 GNP 격차를 들을 때는 별로 실감이 가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비참한 삶을…….

그랬다. 하나를 보면 열 안다고. 난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전반적인 삶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홍수까지……. 그들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또 다른 반쪽에 살고 있는 우리 또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적응되어 있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외압에 눌러 사회화되고 있을 뿐, 선택의 의지는 없었다. 하기는, 그곳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에게도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던가? 아니다. 그들은 의사표시의 자유보다는 이미 선택된 이데올로기의 힘을 업고 있는 소수의 특권층으로부터 의무를 이행할 것을 먼저 강요받았다. 그리고는 불쌍히도 거기에 적응해 버리고 말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전시장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 전시는 말이 ‘인쇄물전’이었지 실제로는 ‘생활용품전’인 것처럼 느껴졌다. 담배갑부터 성적표까지 참으로 다양한 것이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는 삶 자체가 활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들의 질과 양과 제작목적이 우리와 다르듯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현저히 다르다. 아니, 태고적부터 하나여야 하는, ‘우리’여야 하는 우리가 ‘우리’와 ‘그들’로 각각 다르게 불리우고 있다. 게다가 한 쪽은 자유가 풍족할 만큼 넘치고 한 쪽은 담배하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을 만큼 통제가 극치인 곳. 그랬다. 우리의 또 다른 반쪽의 사람들은 기호품 선택마저도 제한되어 있었다.

거의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난 아주 흥미있는 것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그들사회의 문예지를 비롯한 잡지와 교과서였다. 서둘러 그 쪽으로 다가가 그것들을 읽기 시작했다. 읽고 난 후, 기분이 참 묘했다. 아니 허무했다. 시란 것이, 수필이란 것이, 희곡이란, 소설이란 것이 모두 양김 부자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일색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유스럽게 감정을 노출할 수 있는 욕구마저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그랬다. 모두가 권위에 억압된 듯한 똑같은 목소리였다. 불쌍하다 못해 두려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자유와 행동과 감정마저 억압되었을까? 새삼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유난스레 똑바르게 정리되어 그것이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어느 소년의 노트도 더이상 찬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경악의 대상이라면 모를까.



억지스레 또박또박하게 정리되어있는 질 나쁜 종이위에 적혀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들의 힘든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말이야 그들도 민주공화국이지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인 국민에겐 아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특권층에겐 아주 풍족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돌아오는 길은 씩씩했다. 아니 씩씩하다 못해 참담했다. 우리는 아니 나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와 생김도 똑같고, 말씨도 똑같고, 조상도 똑같은 저 위 또 다른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다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콧가를 스쳤다. 파랗게 펼쳐진 바다가 너무 상쾌하게 다가왔다. 새삼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솟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들, 아니 또 다른 우리에게도 자유가 주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빨리 통일을 바라면서 조금은 씩씩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다.



## 인천북한관 '96 통일글짓기 대회 최우수작

### 시 부문

초등부 : 동자꽃 아가야/김나래

중등부 : 친구야 놀자/조영상

고등부 : 국보/고재진

### 산문부문

초등부 : 통일이야기/나성혜

중등부 : 평양 월드컵/안자영

고등부 : 우리 꿈이 실현될 때/오경선



## 동자꽃 아가야

김 나 래

남동초등학교 6학년

자주색의  
귀여운  
동자꽃 아가야.

백두산의  
귀염둥이  
동자꽃 아가야.

올해도  
여름오면  
웃을 너인데.

화안히  
하늘보며  
웃을 너인데.

단혀진 마음들  
열리지 않는  
철문

서로의 얼굴  
보지 못한  
슬픈 마음만 가득

보고 싶다  
네 모습  
동자꽃 가야.

## 친구야 놀자

조 영 상

구월중학교 2학년

친구야  
우리 함께 놀지 않으련?  
어른들이  
엮어놓은  
이 선을 잘라버리고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서  
백두산 꼭대기  
천지까지  
손에 손잡고  
비-잉  
둘러 앉아  
노래를 부르자  
기쁜 통일의 노래

친구야  
우리 함께 놀지 않으련?  
피흘리며  
지켜왔던  
네 땅  
내 땅  
잊어버리고  
한강  
그 푸른 품에  
안겨도 보고  
대동강  
그 맑은 가슴에  
묻혀도 보자

친구야  
우리 함께 놀지 않으련?  
사십육년  
아파하던  
그 시간을 뒤에 두고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가 빨리 달리나  
누가 제일 크게 웃나



친구야  
우리 함께 놀자  
언젠가  
웃음으로 뒤덮힐  
이 땅을 위해  
우리의  
고운 꿈을  
푸르게  
푸르게  
가꾸어 보자

## 국 보

고 재 진

제물포고등학교 3학년

길을 꿰뚫려해도 거부하는  
긴 가시덤불

땅 위에 사연들 줌  
들어주면 좋으련만

흔적을 남기고 싶은 이를 위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초대한다.

기다리다 한 방울 눈물 남기고  
재작년 흙으로 가신 할머니

혼자 걷는 길에  
또 원망이 쌓여가네.

## 통일이야기

나 성 혜

산곡북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국어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요.”

“선생님, 그런 단원은 없는데요.”

개구쟁이 겨레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국어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할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덮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나는 ‘통일이라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말하는 나는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궁금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말씀드리지요.

나는 새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새라구요.

나의 집은 학교 앞 아름드리 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 놀러옵니다. 오늘은 날으는 연습을 하려고 4층 창문까

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아이들의 수업광경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두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 아래쪽인 남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도 여러분과 같은 검은 머리를 갖고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잖아요.”

“겨레 어린이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어 본 적 있어요?”

“아, 아뇨.”

“그래요, 겨레 어린이 말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살죠.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단지 중심에 그어진 휴전선의 아래, 위를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짓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겨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북한 사람과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원래 그들과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같은 자손으로 대대손손 어울려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었을 때 우리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미국과 소련이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그만 둘로 갈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오고 똑같은 말, 풍습을 지닌 한겨레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한겨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겨레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내 이름이 겨레인가 보다!”

그 이야기에 아이들이 왁자지껄 웃었습니다. 한바탕 웃고 나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나라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다지 강대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도 힘이 센 나라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가 둘로 분단된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북한은 그곳의 지배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겉으로는 우리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들이 쳐들어 올까봐 우리나라는 항상 군대를 훈련시키는데 그곳에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요. 통일이 되어 그 돈을 경제 발전에 쓴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당장에 선진국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북한에는 남한보다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고 남한에는 발전된 기술이 있으니 그야말로 강대국이 되겠지요.”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힐끗 보더니 동그랗게 눈을 뜨고 소리쳤습니다.

“야아, 귀여운 새다!”

순간, 아이들과 선생님의 눈이 모두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놀라서 창문 밖으로 날아가 난간에 걸터 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고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우리도 저 새들처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강산으로 소풍을 가고,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그런 날이 빨리 오길 선생님은 바래요.”

‘난 그렇게 멀리까지 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는 어리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매우 멋진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부르고 마치도록 할까요?”

선생님의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이 입을 맞추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 나는 열심히 날으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 평양 월드컵

안 자 영

부평 서여자중학교 3학년

4 월은 내게 너무나 바쁜 달이다. ‘과학의 달’이란 이름으로 과학에 대한 행사가 죽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표어, 포스터 그리기, 독후감, 모형 항공기 날리기 대회, 과학 퀴즈 대회 등등 할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은 달이 바로 4월이다. 워낙에 적극적인 성격인 나는 언제나 최소한 한 가지씩은 꼭 맡아서 해 왔다. 이번에도 역시나 원고지 한 뭉치를 들고 책상에 붙어 앉아 있는데, 동생이

“언니, 나 과학 상상 그리기 해야 되는데 뭐 그릴까?”

하고 도움을 청했다. 물론 내 일이 지겹기도 했지만 나도 책임감 있는 언니라 만사를 제치고, 머리를 굴렸다. 미래도시, 해저도시, 우주세계……. 이런 저런 그림이 떠올랐지만 모두 내가 한번쯤은 그려 봤던 것으로 흔하디 흔한 것들이었다.

뭔가 색다른 것을 찾던 도중에 언뜻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월드컵이 떠올랐다.

‘2002월드컵과 첨단 과학의 이상적인 조화’

그 주제는 열렬한 축구 팬에다 월드컵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동생의 마음에 꼭 드는가 싶었다. 그런데 동생은 그것도 성에 차질 않는지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라는 말을 넣고 싶어 했다.

언젠가 뉴스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다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월드컵 개최권을 따낼 확률도 높아지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의 관계가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서 부푼 기대가 차 올랐다. 하지만 북한과의 통일을 한 한국의 모습을 어리숙한 한 장의 그림으로 바라보며 왠지 모를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작년말 도덕 시간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끝에 선생님께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꺼내 놓으신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난 어이없이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번쩍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 보는 순간 내 손이 무색해짐을 느꼈다. 28명. 과반수인 25명을 겨우겨우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가 나온 것이다.

“그래도 이 반은 좀 낫네.”

선생님께서 눈을 한 번 치켜 뜨시고 짧은 한숨을 내쉬신 후에 하신 말씀에 들고 있던 손마저 내릴 겨를을 찾지 못했다.

손을 들지 않은 친구들의 이유로는 경제적인 차이로 봐서 남한이 손해라는 것이 태반이었고, 부수적으로 북한과의 이질감이 심각해져서 그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의견이나, 정치적 불안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게다가 통일이 되건 안되건 알바 아니라는 말도 간혹 들을 수 있었다.

통일의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



만 북한이 우리 민족임을 생각한다면 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까?

난 그 날 도덕 시간에 통일에 부정적인 아이들을 설득할 기회를 가졌다. 가족을 장단점을 따지며 고를 수 없듯이 북한도 같은 민족이기에 장점을 일일이 따져서 단점과 저울질하여 그 결과를 따져 통일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국방비 지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쓴다면 21세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이것 저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좀 미안한 생각이 든 아이들 서너명을 제외하고는 그 생각을 굽히기에 내 설득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그 때 일을 생각하면 과학 그리기까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그리려는 동생이 대견스러워졌다.

얼마 후 동생이 채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스케치를 좀 고쳐 주다가 전광판에 ‘개최지: 평양’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진영아, 왜 하필이면 평양이나? 그냥 인천으로 해라, 응?” 하며, 인천이 우리 고장이라는 생각에 동생에게 평양을 인천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

“왜? 지금은 나중에 통일한 모습을 그리는 건데 왜 안돼?”

“지금 북한이잖아. 그래도 현재 남한에 있는 도시가 낫잖아.”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동생이

“이건 내 그림이야. 내 맘대로 할꺼야.”

하고 잘라 말하는 바람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걸 눈치 채고

“언닌 평양이 싫어?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 땅인데 뭘 그렇게

따져?”

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내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북한이 한 민족이라고 한 나라라고 그렇게도 열심히 설명했던 내가 단지 지금 북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양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니. 통일을 바라던 내 생각이 가식투성이였음을 깨달았다.

‘정말 내가 통일을 원하는 것일까? 도덕 시간에 손을 들지 않은 아이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미리 알고 솔직히 털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자 불현듯 섬찝해졌다. 그제서야 ‘이질화’라는 단어의 뜻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통일이 되면 이질감쯤이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부터 어느새 차곡차곡 이질감이 쌓여버린 것이다.

이제 쉽게 녹여버릴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얼어버린 마음을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 남과 북 사이의 긴 외줄을 건너 즐거운 마음으로 평양 월드컵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우리 꿈이 실현될 때

오 경 선

가정고등학교 1학년

H에게  
정말 오랫동안 연필을 들었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거니?

난 지금 ‘통일 글짓기’를 하고 있어. 해마다 이 글을 쓸 때  
면, 내 소박한 글 몇 자로 금세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할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웬지 이번만큼은 연필이 잘  
나가지질 않는다.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한 확신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얼마 전 북측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내용이 아침 신문  
의 1면을 가득 메웠던 걸 알고 있지? 그 날은 텔레비전을 보아  
도 라디오를 들어도 모두 똑같은 얘기들이었어. ‘북한의 전쟁  
협박’, ‘군단국의 비상 경계태세 돌입’ 등 말만 들어도 긴장감  
이 도는 어휘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내렸다.

“한 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군.”

그들에 대한 뒤뜰린 배신감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이런 말  
이 튀어 나오더라. 이같은 북한의 돌발적 사태가 내게 직접적  
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난 뭔가 개운치가 않아.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게만 느껴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해야 시원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야. 다만 어떻게 보면 위협에 불과한 북한의 행동이 내겐, 중대한 메세지라도 담겨져 있는 마지막 결단(?)으로 다가오는 것이 쓸쓸할 뿐이지. 이런 수단을 써야만 했던 북한의 입장이 뭐랄까,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혹시 ‘border’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니? ‘국경’이란 뜻이야. 며칠 전 영어 시간, 보충 교재의 독해 지문에 나온 단어인데 그 지문의 요지란 즉, ‘아시아의 지리적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였어. 이 말이 뜻하는 바대로 최근의-아시아뿐만이 아닌-세계 정세를 살펴 보면 ‘국경’이란 단지 상징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에 비해 우리 남·북간의 관계는 그 까짓 철조망 따위로, 뚜렷한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지 않니?

아마도 우리 나라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속해 있는 모양이야. 이런, 얘기가 어느새 이런 곳까지 흘러왔구나.

난 그저 생각할 따름이야.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우리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 보아야만 할 문제들을.

지난 겨울이었나?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니?

“북한 사람들은 웬지 낯설어. 어떨 때는 오히려,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낯설게만 느껴져.”

그 때는 나 역시 이런 너의 말에 동조하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었지. 하지만 틀렸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조상을 섬기는 한 핏줄인거야. 반으로 동강난, 그런 반쪽짜리 지도를 우리 나라 지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지리 시간에도, 역사 시간에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도는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국이야. 아무리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이 분단되어진 채로 흘러 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숨쉬고 있잖나? 우리들 모두는 결코 낯설지 않은, 다 같은 형제들인거야. 이런 단순한 이치를 왜 예전에는 알지 못했을까? 너도 지금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 동안 내가 북한에 대해 느껴 왔던, 생소함이라든가 이질감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다. 답답했던 가슴이 이제 한결 나아졌거든.

넌 내가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이제 내 일기를 좀 읽어봐 주지 않을까?

199×년 ○월 ○일 쾌청함.

나는 어제 저녁 짧지만 귀중했던 3박 4일 간의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여행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둘러 보았던 덕분인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곤이 밀려들었지만,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금강산을 이제 ‘통일된 조국’에서 체험했다는 흥분감에 떠나기 전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역시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

언제쯤이면 이런 일기를 사실로서 쓸 수 있게 될 것 같니? 통일이란 것, 내일이라도 불쑥 찾아 오는 것은 아닐까? 비록 상상뿐이지만 이런 일기를 쪽 써내려갈 때면, 꿈이라 해도 난 좋아. 꿈이란 언젠가는 실현되기 마련이거든.

우리 이 꿈이 실현될 때, 그 기다리던 ‘봄’이 찾아 오면 금강산에 가자.

우리 고향이 있는 곳, 그리운 형제가 있는 곳으로 환하디 환한 얼굴로 마음껏 웃으며 가자꾸나.

1996년 5월 어느 날

그 날을 기다리며  
K로부터

추신 : 그 때가 되면 내게 답장해주렴.



## 광주북한관 '96 통일글짓기 대회 최우수작

### 시 부문

초등부 : 꿈속에서 만난 북한 친구와 함께/이인애

중등부 : 이 천지 어디에도 강물은 넘치고/이승엽

고등부 : 까마귀여/조서영

### 산문부문

초등부 : 우리는 다정한 형제/김은희

중등부 : 통일은 왜?/장 원

고등부 : 관문점을 다녀와서/배은숙





## 꿈속에서 만난 북한 친구와 함께

이 인 애

담양 남초등학교 6학년

아름답고도  
고요한  
꿈속에서  
만난  
북한의 친구.

어느새  
다정한 비둘기 한쌍이 되어  
평화와 자유를 외치며  
북한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슬픔에 가득찬

흩어진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디선가는  
‘꽝! 꽝!’  
불안감에 떨어야만 하는  
전쟁의 무기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변함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어  
노동일에 시달리며 굶주림으로  
매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듬뿍 뿌려줄 수는 없을까?

평화로웠던  
우리나라를  
둘로 나뉘서  
서로간의 따뜻한 정을  
사라지게 한 휴전선을  
지워 버렸으면.

저는  
다시 한번  
북한 친구에게  
희망의 미소를  
띄워 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지금은 그곳이 멀지만  
꼭 하나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친구와 함께  
희망의 약속을 해봅니다.

# 이 천지 어디에도 강물은 넘치고

이 승 엽

치평중학교 2학년

태양은 한라에서 뜨고

또 한번

태양은 백두에서 뜨고

우리가 몰아간

바람

한데 하늘로 올라

참지 못할 눈물되어 내리더니

이 천지 어디에도 강물은 넘치고

알지 못할 깊은

물살에 밀려

밀려가서는

내 배는

등대없는 밤  
사해의 바다를 헤엄쳐  
끝끝내 동터올 새벽을 출렁이며  
내 작은 돛을 올리리

아직은 어두워도 좋은 밤  
이 천지 어디에도 강물은 넘치고  
이 천지 어디에도 태양은 차오르고  
나는 격랑의 파도를 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넘실대는 생명의 한 바다를  
노 저어 가리

## 까마귀여

조 서 영

장흥고등학교 2학년

잘려진 들녘을 가로지르는  
까마귀여  
너는 날개를 푸득거린다.  
하지만 너는 높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의 키만큼 몸을 띄우고 못난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

알고 있느냐 까마귀여.  
우리네들의 못-다-폰 이야기.  
모르겠구나.  
이미 흘러버린 세월의 상처.  
가끔은 투쟁하는 이와 저지하는 이의 부딪힘만  
보았을 뿐.

지혜로운 까마귀여,  
누가 인간더러 만물의 영장이랬더냐  
서로 경계하고  
피가, 같은 피가 흐름을 망각하고  
자국의 이익  
자신의 잘남만을 과시하려 드는구나.

답답하구나. 까마귀여.  
거칠어지고 멀어져가는 가슴들이  
틀에 박힌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른들이.  
긴장속에, 총 드리우고  
‘통일이여라’ 외치는 이들이.

그래, 맘껏 웃어라. 까마귀여.  
비웃음이라도  
동정일지라도 좋다.  
하지만 까마귀여.  
여지껏 외치지 못한 한마디.  
이내 가슴으로 토해내고  
행복에 겨워 미쳐도 좋다.  
그 가슴 벽찰 날이 있는 순간에.

## 우리는 다정한 형제

김 은 희

곡성 동계초등학교 6학년

이 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만나면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이 글을 쓴다.

친구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지난 지도 보름이 되어 가는구나. 금년에는 날씨가 아주 좋아 곡식과 과일들이 다른 해보다 아주 풍성해서 더욱 즐거운 명절이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는 가을철을 맞아 우리 어린이 들은 맑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드넓은 공원에 모여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가며 즐거운 글 쓰기 잔치를 갖게 되어 북한에 있는 정다운 친구들이 생각나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친구야, 것처럼 무덥던 여름이 가고 이젠 서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드는 계절이 왔구나.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지.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밤도 길어졌으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불을 밝혀 놓고 귀뚜라미 소리 벗을 삼아 책상에 앉아 책을 읽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 아니겠니?



친구야,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왔  
다지. 그러니까 삼천리란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를 말  
하는 거라고 들었어.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한이니 북한이니 하  
는 말 없이 남과 북이 같은 땅 같은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반만년이란 긴 역  
사를 가지고 살아 오면서 훌륭한 문화 유산을 많이 남긴 문화  
민족으로 오순도순 정답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외국의 간섭 때문에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한때는 나쁜 공산당 때문에 같은 동포끼리 가슴에 총을 겨누  
고 싸우기까지 하다가 휴전이 된 상태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  
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들었어.

친구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북한은 물난리 때문에 곡식  
을 가꾸지 못해 식량이 부족해서 끼니를 굶기도 한다는데 그  
게 정말이니? 우리 남한은 해마다 계속되는 풍년으로 곡식과  
과일이 넉넉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먹고 지내기 때문에  
몸이 뚱뚱해지는 비만증이 생겨서 아주 곤란하단다. 이런 때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는 휴전선이 없고 우리가 서로 가고 올  
수 있다면 우리 남한의 넉넉한 식량을 너희 북한으로 보내줄  
수 있을텐데 어른들은 왜 휴전선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가고 오지 못하게 막고 서로 떨어져 있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편지마저 보내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야, 우리 집 이웃에 북한에서 왔다는 할머니 한 분이 아  
주 외롭게 살고 계시는데 추석과 같은 명절이 돌아오면 북한

에 있는 친척들이 생각나서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

친구야, 머지않아 우리도 어른이 되겠지. 그때는 지금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휴전선을 제일 먼저 없애버리고 서로 간에 잘잘못이 있을지라도 양보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지금 세계 여러나라들은 제 각기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들었어.

친구야, 우리들 세상이 오면 꼭 힘을 모아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 온 국민이 가장 사이좋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럼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이만 줄인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길 빌겠다. 안녕.

1996년 10월 11일

남한에서 은희가 보낸다.

## 통일은 왜?

장 원

문흥중학교 2학년

“야! 또 한명 죽었대.”  
“이제, 2명 남았네?”

“이러다 전쟁나면 어떡하지? 무서워.”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무장공비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식량난에 지독한 경제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먼 가슴이 더 멀어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요즈음 학생들 중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큰 문제다.

그러면,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전, 10월 3일은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널리 이롭게 하셨을 때, 우리는 둘이 아닌 하

나였다. 또, 엿그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다. 세종대왕께서 집현전의 학자들과 어렵고도 어렵게 만드신 과학적인 한글. 이 한글을 쓰는 민족 역시 이 넓고도 넓은 세계에서 우리 민족뿐이다.

우리 외할머니는 함경도가 고향이다. 그래서 할머니의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들은 생일이라도 되어 온 가족이 모이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너무나 가깝지만, 너무나 먼 그 곳이 그리워, 눈망울엔 이슬이 맺히고 마신다. 죽기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향땅에 가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는 할머니. 이렇듯 다리 한번 짚 못 펴고 매일을 고향을 그리며 사는 이산 가족들. 같은 핏줄, 한민족이 생이별을 하고, 만나지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유야 있지만 모두 구차한 것일 뿐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다른 나라의 도움만을 바래서는 안된다. 최근, 미국의 비밀보고서를 입수한 어느 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중에 미국이 한국통일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우방인줄로만 알았던 미국 또한 자기나라의 이익에 해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와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일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단 말인가?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 50여년이나 분단되었던 우리가 금방 생각이 일치하고 의견이 통일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항상 함께 있는 가족들과도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물며 북한과 우리와의 의견통일이 쉽게 빨리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요구가 아닐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고, 너무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도 적자에 과소비 등 경제사정이 좋지않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북한에게 자신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자! 이제 한발한발 다가가자! 우리의 후손에게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 판문점을 다녀와서

배 은 숙

고금종합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1·2학년 남·녀 43명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판문점을 견학하였다. 이번 판문점 견학은 나에게 있어서 두번 다시 오지 못할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판문점을 견학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는 새벽에 일어나 6시 20분에 마량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숙소인 파주를 향해 신나게 달렸다.

우리는 광명시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 견학을 마치고 용산의 전쟁 기념관을 견학하였다. 1층에는 3층 구석기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다. 내가 중 2·3학년 때 국사 시간에 들었던 우리 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의 얼굴 흉상도 있었고, 여러가지 많이 있었는데 특히, 3층에는 옛날 군대와 지금의 군대의 모습, 그리고 식당 등과 비교해서 배열해 두었는데 그것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옛날과 지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열을 아주 잘한 것 같았다. 여기를 견학하면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화해 온 전쟁의 도구뿐만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몇 시간 후 친구들과 나는 경기도 파주 청소년 수련원 숙소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귀순자와 자유 토론회를 갖고 북한 관련 VTR을 시청하였다. 귀순자와의 토론회에서 우리들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우리가 보통 북한을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도 우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 통일은 될 수 없으며 전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답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51년 전만 해도 같은 나라에 살았었는데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VTR을 시청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의 직위, 가족, 친지들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우상화하는 교육을 시켰다. 북한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한 사람의 말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식사를 한 뒤 7시 30분에 숙소에서 출발하여 통일로를 따라 임진각을 거쳐 자유의 다리를 건넜는데, 자유의 다리 왼쪽에 옛날에 있었던 다리의 앙상한 뼈만이 남아 있어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도라 전망대’에 가서 군인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망

원경으로 개성시를 보았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정동에 자리잡은 160m 크기의 인공기와 우리 나라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에 자리잡은 100m 크기의 태극기, 송신탑, 그리고 사람들을 보았다. 아저씨가 설명하시길 송신탑은 개성 시민들이 남한 방송을 못 듣도록 방해 전파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도라 전망대’의 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 땅을 직접 가서 마음껏 밟아 보고 싶었다.

우리는 다시 제3땅굴로 갔다. 땅굴 아래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뚫을까? 몇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라 전망대’에서 제3땅굴로 가는데 길 아닌 곳은 모두 지뢰밭이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 시멘트 장벽들이 있었는데 만일 북한이 침략해 왔을 때는 이것을 모두 폭파시켜 길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걸 보고 무어라 해야 할지? 꼭 이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했다. 아니, 우리 나라의 현실이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판문점을 견학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유엔사에서 일단 내려 군인 아저씨에게서 주의 사항을 듣고 차를 바꾸어 타고 판문점을 향해 갔다. 그런데 아저씨가 비무장 지대에 살고 있는 대성동 마을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군인 아저씨들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평화의 집, 자유의 집을 거쳐 판문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난 처음으로 북한땅을 밟아 보



았다. 그때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나 자신은 모른다. 밟아 보아서 기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우리 땅인데 나중에는 밟을 수 없는데서 오는 슬픈 마음인 것인지, 머리 속에서 잔잔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우리가 판문점을 견학할 때 북한 측에서도 판문점을 견학하는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배고픔에 시달려서 고생한다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수작인지 아니면 북한의 노동당인가 하는 당의 자녀들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목적지인 판문점을 견학하고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번 판문점 견학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통일의 중요성을 그리고 북한 땅이 바로 코앞인데 갈 수가 없다는 점이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갖는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 더 나아가 북한 국민까지 모두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 일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



## 청주북한관 '96 통일글짓기 대회 최우수작

### 시 부문

초등부 : 통일은 언제쯤/변양길

중등부 : 어머니(조국)/천은정

고등부 : 봄을 좋아하는 소녀/전인숙

### 산문부문

초등부 : 수학여행/권윤희

중등부 : 피는 물보다 진하다/박미라

고등부 : 하나이기 때문에/이지숙



## 통일은 언제쯤

변 양 길

교동초등학교 6학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하라는  
풍성한 한가위

할아버지 앞마당 감나무에는  
둥근 달 높이 떠  
저너머  
북녘 땅도  
환히 비추어 주겠지

단군할아버지 이나라 세우셨다는  
그때는  
한겨레 한민족이었지요

높다란 아파트 사이사이  
태극기는 휘날리는데  
저너머  
북녘 땅은  
어떤 모습일까?

백성들을 위해 글을 만드신  
오백오십돌 한글날

TV속에  
귀순한 북한 아저씨도  
우리말을 함께 쓰던데

왜 남북은  
함께 살지 못하지

우린 분명 하나인데  
언제 썸이면  
금수강산이 태극기로 물들고  
헤어진 이산가족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 어머니(조국)

천 은 정

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어머니!  
아침 하늘에  
영롱하게 퍼져있는  
무지개빛 햇살을 보며  
당신을 위해  
이름 없이 사라져 간  
호국의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민족끼리  
피흘려 싸워야 했던 그날  
어머니!  
당신을 지키기 위해  
불꽃처럼 꺼져만 간  
수많은 용사들의 넋은

화안한 등불이 되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마음은  
저 하늘 어디엔가  
이 땅 어디엔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철조망에  
허리를 잘리운 채  
신음하시는 어머니의 병이  
다 나오시는 날  
호국의 넋들은  
편히 잠들 것입니다.

이제  
통일의 그날을 위해  
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영원토록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 봄을 좋아하는 소녀

전 인 숙

금천고등학교 1학년

봄을 좋아하는 소녀  
뒷산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  
꽃물이 쏟아질듯한 곳  
시내 언저리에 매달린  
얼음 알갱이 사이로  
둥글둥글 미끄러지는 물소리에  
풀풀 피어오르는 연기속의  
구수한 청국장과  
땀방울로 부쩍자라 한가득 고개속일  
보슬보슬한 눈 속의 보물

눈 쌓인 담장아래서  
생각하는 소녀  
얼른 봄이 오면.....  
지붕엔 눈만 가득이고

꼭 닫힌 문 밖에  
매서운 바람소리  
나무 때는 냄새 뿐인 추위

아랫목을 텅굴며  
팽강을 부러보지만  
겨울 없는 봄도 있냐고……

내일은 장독대에서 빌어볼 참이다  
꽃물 가득한 진달래  
얼른 보고싶다고  
정성 다해서 빌거다

봄을 좋아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소녀

## 수학여행

권 윤 희

흥덕초등학교 6학년

**학** 교에서 점심식사 후, 어린이 회관으로 출발을 했다. 선생님께서 ‘통일’ 이 주제라고 설명해 주셨다.

‘난 북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

하는 생각에 대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솔직히 이런 대회는 나에게 큰 충격을 준다. 상을 못 타면 어찌나?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내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바로 수학여행 때문이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수학여행. 경주에 있는 불국사를 돌아보며 환호성을 지르며 감탄하기 바빴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중학교 때 설악산으로 여행 갈때가 더 좋다고 하셨다. 그러자, 남자 아이들이 “아니예요, 저희는 수학여행 백두산과 금강산으로 갈 거예요.” 하며 웃어댔다. 장난으로 말했지만 통일이 언제올까, 걱정이 되기만 했다. 검푸른 동해바다와 멋진 광경이 어우러진 곳에 참수함을 가지고 몰래 쳐들어온 무장 공비들. 그래서 한 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하루하

루를 보내고 있다.

“진짜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무장 공비들 때문에 민간인도 죽었는데…….”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께선 모든 것이 김정일 잘못이라 하셨다.

“교실에서 반장이 아이들을 잘 이끌면 모든 아이들이 따라 오지 않니? 그 것과 같은 거야.”

하시면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맞아, 그럴꺼야. 급식 받으며 사는 북한 주민들. 너무 불쌍하다.”

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엄마께선 벌써 우리 윤희가 다 컸다고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북한의 ‘비읍’만 들어도 자리를 피하던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부말고는 다른 것에 절대로 신경쓰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말한 내가 미웠다. 또한 군것질, 옷을 사느라고 흥청망청 써 버린 돈을 되찾고 싶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년에는 어엿한 청소년·중학생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을 나부터 심어 그 씨앗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고 싶다. 또한 통일이 빨리 오길 빌며 보람된 중학 생활을 보내고 싶다.

중학교 수학여행 목적지는 백두산과 금강산. 우리 모두 출발!

##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박 미 라

일신여자중학교 2학년

**일** 마전 국어시간의 일이었다.  
난 솔직히 국어란 과목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국어시간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 수필은 내용도 쉽고 재미있어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도 기가 막혀서.....”

이 부분을 막 읽으시던 선생님께서 이 곳에서 알 수 있는 노인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한 번 말해보라고 하셨다. 교실은 조용했다. 친구들 모두 선생님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 교실 안은 온통 조용했다.

그 때 문득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신문이 생각났다.

요즘 뉴스든 신문이든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다. 언제나 뉴스에 꼭 한번씩 이야기 되다가 또 사건이 터지면 10분이고 20분이고 중점보도되는 일 말이다.

얼마전 북한 공비가 내려온 일에 대하여 북한이 또 억지소

리를 했다는 내용이 머릿기사로 있었다. 여기에서 ‘적반하장’이란 말을 읽은 기억이 났다.

처음 듣는 어려운 말이었기에 아버지께 여쭙어본즉 잘못된 쪽에서 오히려 화를 낸다는 말이라 하셨다.

그 때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혹시,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러자 선생님께선 처음 나온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알았냐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그 신문기사 때문에 여전히 착잡했다.

요즘엔 사회 문제며 해결책 등을 자주 생각해 보는데, 유난히 걱정도 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북한에 관한 일이다. 공비가 내려온 얼마전에도 한총련으로 시끄러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였다. 항상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을 회피하는 북한이 솔직히 믿기도하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한 동안 쌀지원 등으로 동족애를 보이며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번번히 이런 일로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로 갈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바뀌는 일이 더욱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에 친구들에게 북한과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많은 수가 반대를 이야기한다.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우리와 경제수준이 같게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차라리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길 한다.

바로 시간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같은 형제조차 미워하고 싫어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

##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박 미 라

일신여자중학교 2학년

**일** 마전 국어시간의 일이었다.  
난 솔직히 국어란 과목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국어시간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 수필은 내용도 쉽고 재미있어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도 기가 막혀서.....”

이 부분을 막 읽으시던 선생님께서 이 곳에서 알 수 있는 노인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한 번 말해보라고 하셨다. 교실은 조용했다. 친구들 모두 선생님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 교실 안은 온통 조용했다.

그 때 문득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신문이 생각났다.

요즘 뉴스든 신문이든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다. 언제나 뉴스에 꼭 한번씩 이야기 되다가 또 사건이 터지면 10분이고 20분이고 중점보도되는 일 말이다.

얼마전 북한 공비가 내려온 일에 대하여 북한이 또 억지소

리를 했다는 내용이 머릿기사로 있었다. 여기에서 ‘적반하장’이란 말을 읽은 기억이 났다.

처음 듣는 어려운 말이었기에 아버지께 여쭙어본즉 잘못된 쪽에서 오히려 화를 낸다는 말이라 하셨다.

그 때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혹시,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러자 선생님께선 처음 나온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알았나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그 신문기사 때문에 여전히 착잡했다.

요즘엔 사회 문제며 해결책 등을 자주 생각해 보는데, 유난히 걱정도 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북한에 관한 일이다. 공비가 내려온 얼마전에도 한총련으로 시끄러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였다. 항상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을 회피하는 북한이 솔직히 믿기도하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한 동안 쌀지원 등으로 동족애를 보이며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번번히 이런 일로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로 갈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바뀌는 일이 더욱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에 친구들에게 북한과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많은 수가 반대를 이야기한다.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우리와 경제수준이 같게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차라리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길 한다.

바로 시간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같은 형제조차 미워하고 싶어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



##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박 미 라

일신여자중학교 2학년

**일** 마전 국어시간의 일이었다.  
난 솔직히 국어란 과목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국어시간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 수필은 내용도 쉽고 재미있어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도 기가 막혀서.....”

이 부분을 막 읽으시던 선생님께서 이 곳에서 알 수 있는 노인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한 번 말해보라고 하셨다. 교실은 조용했다. 친구들 모두 선생님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 교실 안은 온통 조용했다.

그 때 문득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신문이 생각났다.

요즘 뉴스든 신문이든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다. 언제나 뉴스에 꼭 한번씩 이야기 되다가 또 사건이 터지면 10분이고 20분이고 중점보도되는 일 말이다.

얼마전 북한 공비가 내려온 일에 대하여 북한이 또 억지소

리를 했다는 내용이 머릿기사로 있었다. 여기에서 ‘적반하장’이란 말을 읽은 기억이 났다.

처음 듣는 어려운 말이었기에 아버지께 여쭙어본즉 잘못된 쪽에서 오히려 화를 낸다는 말이라 하셨다.

그 때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혹시,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러자 선생님께선 처음 나온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알았나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그 신문기사 때문에 여전히 착잡했다.

요즘엔 사회 문제며 해결책 등을 자주 생각해 보는데, 유난히 걱정도 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북한에 관한 일이다. 공비가 내려온 얼마전에도 한총련으로 시끄러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였다. 항상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을 회피하는 북한이 솔직히 믿기도하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한 동안 쌀지원 등으로 동족애를 보이며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번번히 이런 일로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로 갈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바뀌는 일이 더욱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에 친구들에게 북한과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많은 수가 반대를 이야기한다.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우리와 경제수준이 같게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차라리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길 한다.

바로 시간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같은 형제조차 미워하고 싫어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

상은 더욱 더 일어날 것이다. 이미 언어, 행동, 생각 등 많은 부분에서 북한과의 이질화는 꽤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언젠가는 ‘북한과 한 때는 같은 나라였지’란 말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 최대 과제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나 자신의 생각부터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 자신부터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며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지만 한 민족 한핏줄이란 민족애로써 서로를 이해하면 민족 통일은 더욱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이 말은 조금씩 잘못 흘러가는 우리 청소년의 생각을 따끔한 회초리가 되어 가슴을 친다. 불신과 오해가 아닌 믿음과 이해로써 우선 나 자신의 올바른 자세가 통일을 앞당기리라고 생각한다.

##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 속

충북대 사대 부속고등학교 1학년

해마다 명절날이 되면 온국민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흥겨워하며 고향길로 접어들곤 한다. TV와 신문에서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시골에서 도란도란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있는 정겨운 가족들의 모습을 연이어 기사화하고, 집집마다 부지런을 떨며 준비하는 음식은 그야말로 즐거운 명절을 더더욱 즐겁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산하고 흥겨운 명절날 속에서도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고향가는 사람들로 도로가 인산인해를 이룰 때에도 북에 고향을 둔 죄로 아무곳으로도 향하지 못하고 한숨짓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얼마전 추석때 TV에서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운지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향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차례를 지내고 있었다. 자신의 부모형제를 만나 보지 못하고, 어릴때 뛰놀던 흙 위를 다시 걷지 못하는 그들은 아련한 북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저 산고개 하나만 넘으면 내 고향일테지, 저 뿌연 안개 너머에는 우리 부모형제 색색으로 기름 반지르한 송편 해놓고 날 기다리고 있을테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바로 앞에 있는 철조망조차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들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시지만 우리 큰아버지께서도 고향이 함북이었다. 9살까지 그곳에 사시다가 피난통에 강원도 철원으로 내려오셨다는데 우리 아버지와는 나이 터울이 많이 지셔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아직 할머니 배속에 계셨었다고 한다. 명절날이 되어 우리가족 모두가 큰댁으로 차례를 지내러 가기라도 하면 큰아버지께서는 술상을 차려놓고 아버지와 한 잔 하시면서 늘상 고향얘기를 꺼내셨다. 그 때는 ‘또 그얘기!’ 하면서 지겨워하기도 했었는데 급작스런 사고로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 늘 ‘한번만 고향에 가 봤으면……’ 하시던 그 말씀이 내 뇌리에서 자꾸 맴도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또 그럴 때마다 이산가족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6·25가 일어난 지 30년이나 지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의 비극을 절실히 느낄 수는 없다. 아 니, 잘 모르겠다. 그것은 6·25세대가 아니라면 누구도 잘 모르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이른바 신세대들 사이에는 이상한 가치관이 자리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통일이 이제는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또는 ‘통일이 되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을 예찬하는 한총련 시위대같은 문제까지 나타나 더더욱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통일에 대한 안일하고

무관심한 태도와 지나친 북한 예찬론은 둘다 진정한 통일의 길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할 뿐이다. 통일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서도, 남침의 야욕으로 무장공비까지 침투시키는 북의 전쟁도발 위협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또다른 여러가지 이유로도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남과 북이 한 핏줄인 이유이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합쳐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의 의식을 고쳐야 한다. 진정으로 남과 북이 하나라는 의식 아래에서만 평화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이나 허리가 잘려져 이제는 세계에서 단 하나의 분단국이 되었다는 치욕적인 사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진정으로 남과 북이 상반된 삶이 아닌 하나로 합쳐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쉬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산가족들 가슴의 응어리가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남과 북을 분리시킬 때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사건은 더더욱 도발될 것이고, 그럴수록 고향을 소망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의 병은 깊어질 것이다.

비록 그 이산가족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 큰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직 살아있는 모든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 추석때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모두가 고향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고 싶다.

## 제주북한관 '96 통일글짓기 대회 최우수작

### 시 부문

초등부 : 통일의 돌담/김민식

중등부 : 오색풍선을 띄우자/김세희

고등부 :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날/이송희

### 신문부문

초등부 : 나의 꿈은 해군/홍성연

중등부 : 친구야!/신경림

고등부 : 어느 귀순용사의 눈물/김지연





## 통일의 돌담

김민식

도남초등학교 6학년

넷가에 놀러가  
쌓아본 돌담.

우르르 무너져  
다시쌓고 또 쌓아도,

몸을 비틀어  
무너져 내리는 돌들.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울퉁불퉁한 마음 때문일거야.

돌 틈을 메운 흙들과  
서로 꽉 붙들고 있다.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맞지않는 마음사이  
우리들의 고운마음으로  
매워준다면,

우리는 하나  
통일된 하나가 될 거야.

말 걸어도 등 돌리는  
북한친구 남한친구 불러내,

울퉁불퉁한 마음사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워준다면,

다정하게 잘 사는  
한겨레 한민족 될 거야.

## 오색풍선을 띄우자

김 세 희

아라중학교 2학년

오색 풍선을 띄우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 모두 하나되어  
풍선을 띄우면  
춤추는 꽃처럼 아름답겠지.

우리네 맘 실어서  
더욱 아름다운  
오색 풍선을 띄우자.

바람, 구름, 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철조망 없는 하늘.

따뜻한 남풍 타고  
북으로 북으로 움직여라 풍선아.  
북녘으로 가거든  
우리마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앉아라.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이 빛나는  
우리 남북땅.  
우리 땅.

오색 풍선을 띄우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서로 갈린  
우리 어린 겨레  
우리부터 사귀어 보자.

##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날

이 송 희

중문상업고등학교 2학년

나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천지에 뛰어 들리라.  
푸른산 맑은 천지물에 발담그고,  
금강산 붉은 단풍에  
10월의 햇살을 받으리라.

마음으로만 손을 잡는 통일.  
멀어라  
너무 멀어라

하늘 먼 바람이  
눈물 맺힌 꽃으로 피는  
외진 그리움의 저편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물 떨군다

총과 총으로 만난 우리  
뼈아픈 민족의 그림자  
피흘린 민족과 함께  
누군가의 마지막 목숨이  
흔들리고 있다

내 애타게 찾던 통일의 소원도  
긴 태양의 질문에  
무관심의 자세로 서서  
민족의 혼을 모아 이룬 형상  
통일

이 모든걸 한숨에 뛰어넘어  
서로 손 잡을때  
침묵의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날은 지나고  
절망과 불행을 거뒀갈 터인데……

애써 방황의 흔적을 지우는  
저 하늘에 부는 바람처럼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날  
나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천지에 뛰어 들리라

## 나의 꿈은 해군

홍 성 연

도남초등학교 6학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연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해 볼  
까?”

“네.”

“어서 일어나서 발표해 봐. 오늘따라 성연이가 왜 힘이 없어  
보일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예요, 선생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할 내용을 되뇌이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꿈을 솔직하게 말할까? 해군이 되겠다는 나의 희망을  
말하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아까 의사가 되겠다는 승호와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윤제가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부러웠다.

“저는 이 다음에 씩씩하고 늠름한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군  
인 중에서도 해군이 되어 군함을 타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  
치며 우리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발표에 남자 아이들은 박수 대신,

“우—와, 네가 해군이 된다고? 웃기지마.”

하며 나를 놀려댔다.

선생님께서는,

“자, 조용히 하세요.”

하시며 남자 아이들을 타이르셨다.

“성연이는 해군이 되고 싶다고? 그래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렴.”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우울했던 내 마음을 조금은 씻을 수 있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성연아!”

말하기·듣기 시간에 많은 박수를 받고, 하루종일 우쭐대던 승호가 날 부르며 뛰어왔다.

“응, 왜?”

“왜는 같이 가자구.”

“네가 웬일이니? 나랑 집엘 같이 가자고 하고.”

승호는 조금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성연아, 네 꿈이 해군이 되는 거라고?”

“응.”

“왜 하필이면 여자가 해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니?”

“왜 여자는 해군이 되면 안 되니? 너처럼 당당한 의사가 아니라서 실망했니? 그렇게 너무 우쭐거리지 마.”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 붙여 주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 때, 등 뒤에서 내 단짝 소영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성연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 나의 꿈은 해군

홍 성 연

도남초등학교 6학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연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해 볼  
까?”

“네.”

“어서 일어나서 발표해 봐. 오늘따라 성연이가 왜 힘이 없어  
보일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예요, 선생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할 내용을 되뇌이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꿈을 솔직하게 말할까? 해군이 되겠다는 나의 희망을  
말하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아까 의사가 되겠다는 승호와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윤제가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부러웠다.

“저는 이 다음에 씩씩하고 늠름한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군  
인 중에서도 해군이 되어 군함을 타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  
치며 우리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발표에 남자 아이들은 박수 대신,

“우—와, 네가 해군이 된다고? 웃기지마.”

하며 나를 놀려댔다.

선생님께서는,

“자, 조용히 하세요.”

하시며 남자 아이들을 타이르셨다.

“성연이는 해군이 되고 싶다고? 그래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렴.”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우울했던 내 마음을 조금은 씻을 수 있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성연아!”

말하기·듣기 시간에 많은 박수를 받고, 하루종일 우쭐대던 승호가 날 부르며 뛰어왔다.

“응, 왜?”

“왜는 같이 가자구.”

“네가 웬일이니? 나랑 집엘 같이 가자고 하고.”

승호는 조금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성연아, 네 꿈이 해군이 되는 거라고?”

“응.”

“왜 하필이면 여자가 해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니?”

“왜 여자는 해군이 되면 안 되니? 너처럼 당당한 의사가 아니라서 실망했니? 그렇게 너무 우쭐거리지 마.”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 붙여 주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 때, 등 뒤에서 내 단짝 소영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성연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 나의 꿈은 해군

홍 성 연

도남초등학교 6학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연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해 볼  
까?”

“네.”

“어서 일어나서 발표해 봐. 오늘따라 성연이가 왜 힘이 없어  
보일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예요, 선생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할 내용을 되뇌이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꿈을 솔직하게 말할까? 해군이 되겠다는 나의 희망을  
말하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아까 의사가 되겠다는 승호와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윤제가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부러웠다.

“저는 이 다음에 씩씩하고 늠름한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군  
인 중에서도 해군이 되어 군함을 타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  
치며 우리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발표에 남자 아이들은 박수 대신,

“우—와, 네가 해군이 된다고? 웃기지마.”

하며 나를 놀려댔다.

선생님께서는,

“자, 조용히 하세요.”

하시며 남자 아이들을 타이르셨다.

“성연이는 해군이 되고 싶다고? 그래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렴.”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우울했던 내 마음을 조금은 씻을 수 있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성연아!”

말하기·듣기 시간에 많은 박수를 받고, 하루종일 우쭐대던 승호가 날 부르며 뛰어왔다.

“응, 왜?”

“왜는 같이 가자구.”

“네가 웬일이니? 나랑 집엘 같이 가자고 하고.”

승호는 조금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성연아, 네 꿈이 해군이 되는 거라고?”

“응.”

“왜 하필이면 여자가 해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니?”

“왜 여자는 해군이 되면 안 되니? 너처럼 당당한 의사가 아니라서 실망했니? 그렇게 너무 우쭐거리지 마.”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 붙여 주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 때, 등 뒤에서 내 단짝 소영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성연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 나의 꿈은 해군

홍 성 연

도남초등학교 6학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연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해 볼  
까?”

“네.”

“어서 일어나서 발표해 봐. 오늘따라 성연이가 왜 힘이 없어  
보일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예요, 선생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할 내용을 되뇌이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꿈을 솔직하게 말할까? 해군이 되겠다는 나의 희망을  
말하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아까 의사가 되겠다는 승호와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윤제가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부러웠다.

“저는 이 다음에 씩씩하고 늠름한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군  
인 중에서도 해군이 되어 군함을 타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  
치며 우리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발표에 남자 아이들은 박수 대신,

“우-와, 네가 해군이 된다고? 웃기지마.”

하며 나를 놀려댔다.

선생님께서는,

“자, 조용히 하세요.”

하시며 남자 아이들을 타이르셨다.

“성연이는 해군이 되고 싶다고? 그래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렴.”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우울했던 내 마음을 조금은 씻을 수 있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성연아!”

말하기·듣기 시간에 많은 박수를 받고, 하루종일 우쭐대던 승호가 날 부르며 뛰어왔다.

“응, 왜?”

“왜는 같이 가자구.”

“네가 웬일이니? 나랑 집엘 같이 가자고 하고.”

승호는 조금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성연아, 네 꿈이 해군이 되는 거라고?”

“응.”

“왜 하필이면 여자가 해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니?”

“왜 여자는 해군이 되면 안 되니? 너처럼 당당한 의사가 아니라서 실망했니? 그렇게 너무 우쭐거리지 마.”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 붙여 주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 때, 등 뒤에서 내 단짝 소영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성연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 나의 꿈은 해군

홍 성 연

도남초등학교 6학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연이가 자신의 꿈을 발표해 볼  
까?”

“네.”

“어서 일어나서 발표해 봐. 오늘따라 성연이가 왜 힘이 없어  
보일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예요, 선생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할 내용을 되뇌이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꿈을 솔직하게 말할까? 해군이 되겠다는 나의 희망을  
말하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아까 의사가 되겠다는 승호와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윤제가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부러웠다.

“저는 이 다음에 씩씩하고 늠름한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군  
인 중에서도 해군이 되어 군함을 타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  
치며 우리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발표에 남자 아이들은 박수 대신,

“우-와, 네가 해군이 된다고? 웃기지마.”

하며 나를 놀려댔다.

선생님께서는,

“자, 조용히 하세요.”

하시며 남자 아이들을 타이르셨다.

“성연이는 해군이 되고 싶다고? 그래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렴.”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우울했던 내 마음을 조금은 씻을 수 있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성연아!”

말하기·듣기 시간에 많은 박수를 받고, 하루종일 우쭐대던 승호가 날 부르며 뛰어왔다.

“응, 왜?”

“왜는 같이 가자구.”

“네가 웬일이니? 나랑 집엘 같이 가자고 하고.”

승호는 조금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성연아, 네 꿈이 해군이 되는 거라고?”

“응.”

“왜 하필이면 여자가 해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니?”

“왜 여자는 해군이 되면 안 되니? 너처럼 당당한 의사가 아니라서 실망했니? 그렇게 너무 우쭐거리지 마.”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 붙여 주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 때, 등 뒤에서 내 단짝 소영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성연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래, 소영아. 역시 너는 내 진정한 친구로구나.”

“그런데 성연아! 넌 공부도 잘 하는데 박사나 선생님이 되지 않고 힘든 군대에 갈려고 하니?”

“난 내 조그마한 힘이라도 모아서 내 나라를 굳게 지키고 싶어.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우리 큰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안 계시도록 할거야.”

어느새 내 조그만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고,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성연아, 너희 큰 할아버지가 어쩐데?”

소영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사실은 우리 큰 할아버지께서 6·25때 전투에 참가했다가 돌아가셨어. 너무도 끔찍한 전쟁이라 언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전사했다는 소식만 전해왔대.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큰 할아버지 묘비를 찾아 간단다. 하이얀 백합 꽃 송이를 꽂아 놓고, 음식을 차려 놓고서 큰 할아버지께 절을 하곤 하지. 지난 현충일에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절을 하다 말고 얼마나 울며 통곡을 했는지 몰라. 그 바람에 나도 덩달아 엉엉 울고 말았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하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땅, 그 중에서도 바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동해 바다를 통해 무장 공비들이 쳐들어왔잖아.”

“그랬었구나, 성연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소영이가 내 손을 꼬~옥 잡았다.

멀리있는 통일이 한 걸음 성큼 다가온 느낌이었다.

## 친구야!

신 경 림

대정중학교 1학년

**친**구야!  
안녕, 나는 남쪽 끝머리 섬 제주도에 사는 경림이라고 해.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니 마치 내 주위 가까운 곳에 내가 서 있는 것만 같아 느껴져. 오늘도 받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내가 한심스럽지만 먼 훗날, 나의 편지가 너에게 전달되는 날만을 상상하며 다시 한 번 용기를 낸다.

이번 ‘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해 통일의 문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처음 TV에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 피부 색깔, 말씨 하나 다르지 않은 우리 나라 사람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다만 그들의 눈에서는 많은 고생을 한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눈치럼 시린 찬기가 서려 있었어.

북쪽 사람들이 타고 온 잠수함. 바다속에서 가만히 큰 바위

처럼 위엄을 지키고 있는 잠수함을 보며 이런 잠수함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다는 점에 우리는 모두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이토록 발전한 북쪽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단다. 더 나를 놀라게 했던 건 우리가 보내 준 쌀이 모두 너희에게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

지금은 쌀 공급이 중단되었지만, 언젠가 같은 식탁에서 남한의 농민들의 땀이 배어 있는 밥상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친구야!

지금까지 모두 오염에 찌든 모습만을 보고 온 것 같아. 우리가 마음 터놓고 웃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구나.

이번 추석은 잘 지냈니?

나는 북녘땅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절을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좀 쓸쓸한 아침을 맞이하였단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구나.’

하고 절실히 느꼈어.

나의 고향은 여기 제주도야.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아도 너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구나.

지난 여름 방학때 우린 태극기를 그리는 숙제를 했어. 자를 이리저리 갖다대며 태극기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었던단다. 하지만 태극원의 파랑과 빨강은 꼭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무척 부끄럽더구나.

그렇지만 바뀔 수 있을꺼야. 태극원 안에서도 원색 물결이 출렁거리고 더 이상 북쪽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보내는 사람들도 없어질꺼야. 철도가 끊겨 달리지 못했던 열차도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곳곳을 누비고 다닐꺼야.

더 중요한 건 너와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꼬옥 잡고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것. 이 황홀한 상상이 꼭 이루어질꺼라 믿어.

난 지금 남한의 TV프로인 ‘통일 전망대’를 보고 있어. 북한의 모습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내 눈으로 전해지고 있단다.

머리에 빨간 꽃을 꽂고 재롱을 부리는 아이들이 귀여워 한껏 소리쳐 웃어본다. 남한, 북한 이 부끄러운 명칭들이 하루빨리 없어지는 날을 빌며…….

1996년 10월 26일

제주도에서 경림이가

## 어느 귀순용사의 눈물

김 지 연

남녕고등학교 2학년

아 직은 따스한 햇살이 몸 속 가득 느껴지는 9월의 오후.  
“1·2학년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지금 즉시 체육관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부시시한 얼굴로 체육관을 향했다. 무슨 이유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지는 몰라도 지겨운 오후 수업을 빼먹는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없었다.

웅성웅성대는 소리들 중 내 귀를 뚫고 들어 오는 것은  
“오늘 귀순 용사 연설한데.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라던데?”

라는 소리였다.

‘귀순 용사? 흥, 또 한 잠 자야겠군.’

친구의 어깨를 베개로 삼고 막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려는 순간, 웅성거림이 멈춰지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귀순 용사의 인사가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싶지는 않았

지만 그 사람의 특이한 말투와 억양이 나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귀순 용사는 월남한 후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아직은 미숙하다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투와 억양이 재미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간 중간 끼어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때문에 짜증이 났다.

“야, 저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몰라. 하나도 못알아 먹겠다.”

이렇게 짜증을 내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갈 무렵, 웅성거림이 더해가자 귀순 용사가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하지만

“저 아저씨 왜 저러니?”

하며 킁킁대는 뒷자리 학생의 행동은 나의 기분을 씩씩하게 만들었다.

한 시간 동안의 지루하고 짜증난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너, 원더우먼이 평양말로 뭐게?”

“뭔데?”

“히히히. 방방뜨는 에미나이라.”

하며 폭소를 터트리던 모습, 북한말로 축구 경기 중계 방송을 하면

“네! 구석차기 성공입니다!”

“문지기의 솜씨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러겠다면서 책상을 치던 모습들이 스쳐갔다. 그리고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또한 느끼지 말아야 할 이질성 이란게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연설이 끝났을 때,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의

장례식때 북한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각본에 짜여진 것이 아니었는지,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있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 있다는데 도대체 식량이 어느 만큼 부족한 건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어느 만큼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지 등등을 묻고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그 연설자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선생님께서 아주 천천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거의 반만년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한민족의 핏줄이 흐르는 사람끼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니 정말 속상했다. 아무리 50년이란 시간이 길다고 해도 어디 반만년의 세월에 비기겠는가. 남한과 북한간의 문화교류와 사람과 사람간의 마음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 일어서려고 할때, 귀순 용사가 우리에게 잠깐만 앉아 달라고 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우리에게 그 귀순 용사는 10분만 더 달라며 잠시 고개를 숙이고서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월남해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한 번 불러보겠다고 했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폭소를 터트렸고 그 사람은 웃으며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1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손바닥으로 박자를 맞추며 어느새 귀순 용사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노래가 끝나 우리는 귀순 용사, 아니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할 그 사람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 멀리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들리도록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 통일로 가는 길

---

통교 96-12-83

발행처 : 통일원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901-7025

인쇄일 : 1996년 12월 26일

발행일 : 1996년 12월 30일

인쇄처 : 양동문화사 TEL. 266-0892

---

〈비매품〉

